# 순수와 열정의 화신

## 연극배우 崔鍾元



*그를 만나본 사람은 꾸밈없이 소탈하고 진실한 태도에 친근감을 느낀다. 그를 다시 만난 사람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감에 박수를 보낸다. 그의 무대를 본 사람은 확실하게 울리고 웃기면서 완성을 향해 치닫는 치열한 연기에 매료되고야 만다. 역할들의 인간상을  자유롭게 형상화하면서 생동하는 육체의 율동과 심장의 박동소리를 살려내는 연극배우 최종원(崔鍾元).*

그를 만나본 사람은 꾸밈없이 소탈하고 진실한 태도에 친근감을 느낀다. 그를 다시 만난 사람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감에 박수를 보낸다. 그의 무대를 본 사람은 확실하게 울리고 웃기면서 완성을 향해 치닫는 치열한 연기에 매료되고야 만다. 역할들의 인간상을 자유롭게 형상화하면서 생동하는 육체의 율동과 심장의 박동소리를 살려내는 연극배우 최종원(崔鍾元). 강물처럼 흐르는 능란한 연기를 펼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일부러 설정한 무대처럼 파란만장이 점철되어있다.

사람들은 부침성있고 정 많은 인간미에서 그의 연기가 흘러나온다고 말한다. 그가 안 해본 역할은 없다. 천하를 쥐고 흔드는 황제, 순교자, 간신배, 의사, 형사, 닳아빠진 도시인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역할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기 내부에 쌓아논 온갖 보화를 인물창조에 쏟아붓는다.

## 몸으로 쏟아내는 마음의 그림들

그의 두 눈은 차가운 결단력으로 번뜩이고 입술은 잔혹한 냉소를 머금은 채 살기어린 말투로 할퀴고 꼬집고 능청스럽게 수작을 부린다. 투창처럼 대사를 내던지다가도 갑자기 달착지근한 가락을 띠면서 간악하고 요살스럽게 다구치고 소리친다. 어느 때는 표독하고 어느 때는 치렁치렁한 정감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르고 달랜다.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숨막히는 의외성으로 극을 몰아가는 동안 관객들은 바늘같은 것으로 등덜미를 찔러대는 섬뜩함을 느낀다.

고교시절, 윗줄 오른쪽 미소짓는 소년이 최종원



그러나 모든 역할이 그 때마다 절실하게 온몸에 밀착되

연극배우 최 종 원

는 것은 아니다. 엉뚱하고 생소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역할은 얼마든지 있어왔다. 1983년 안민수 연출의 <리어 왕>에서 ' 리어 '를 맡았을 때 연극경력 10년이 넘었음에도 70세의 리어를 해내기엔 그로서는 아직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한 달 이상 연습을 했으나 리어의 모습은 허공 중에서 맴돌뿐 연기의 이미지는 포착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역할을 포기하려하자 연출가 안민수는 " 리어는 특별한 인간이 아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있고 회사에 사장이 있듯이 한 나라의 왕이다. 부담을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역할을 받아들이라 "고 설득했다. 연출자의 배려로 리어에 대한 불안을 뿌리칠 수 있었고 역할이 지닌 갈등을 공략하게 되자 이 무대에 올려진 <리어 왕>은 연극계의 화제가 되었다.

그는 " 배우는 사색을 하면 안된다 "는 선배들의 말에 공감한다. "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몸으로 생각할 뿐 배우가 지성적이어선 안된다 "는 것이다. 작가의 감정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순백한 마음의 백지 위에서 수묵화처럼, 때로는 극채색의 무늬로 심각하고 어둡고 상쾌한 변신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끈질긴 노력에 의해 아름다움이 창조되듯이 배우는 자연을 흉내낼뿐 아니라 자연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면서 진실과 미를 연기 속에서 일치시켜야 한다. 어느 순간 무대에 선 그를 보고 선배인 전무송은 " 이제 너와 나는 선후배가 아니라 동등한 연기자 "라고 받아들였다.

### 최종원의 냉철함은 그의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난다

최종원은 차가울 때 차갑고 뜨거울 때 뜨겁게 달아오르는 사람이다. 그에게서 긴가민가하는 모호함은 찾아볼 수 없다. 정의를 부르짖다보니 옳은 말, 바른 말을 도맡아 하는 편이다.

1987년 <토선생전>



텔레비전 출연으로 연극 연습에 소홀해진 선배나 후배를 보면 연극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 연극을 그만두어 달라고 요구한다. " 텔레비전의 연기 보충을 위해 연극을 연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고 준엄하게 꾸짖기도 한다. 연출자나 제작자들에게도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를 끌어내려면 먼저 그에 합당한 적정의 여건을 갖춰달라고 주문한다.

1991년 『연극의 해』를 여는 한 모임에서도 그 동안 창작극의 활성화와 극단 지원 결과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가를 조목조



1990년 <살로메>

목 따졌고, 막연하게 단체를 지원하여 지원금의 효력을 희석시키기 보다 장래성이 보이는 한 사람의 연기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36개의 공연장이 있는 대학로에서 '벗는 연극'이 난무하자 "배우는 작품이 필요로 한다면 입을 수도 벗을 수도 있다. 다만 옷을 벗고 벗기려는 목표가 예술적 가치에 있지 않고 예술을 빙자한 상술이라면 그것은 명백한 사기행각이자 연극모독·관객모독"이라고 지탄해 마지 않았다.

그는 부당함에 대해, 애매함에 대해, 그래선 안되는 것에 대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따지고 물으면서 파행과 변칙의 연극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래선지 동료 후배들은 그를 따르고 신뢰하지만 너무 직설적이고 솔직하다보니 인심을 잃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가 배우의 권익을 부르짖기 시작한 것은 대학졸업 후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다. 극단 초보생시절, 밤에는 새벽까지 연습하고 낮에는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는 고달픈 생활에서도 육체노동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지만 배우가 무시되는 연극계의 잘못된 관행은 용납할 수 없었다.

"연극은 무대 위에서 진실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연극판은 그렇게 순수하거나 진실하지 못했다. 아무도 연극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았다. 배우들은 3, 4개월 이상 연습에 매달려 연극을 했으나 공연이 잘 돼야만 출연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공연이 잘못됐다고 해서 출연료를 주지 않는다면 연습 3개월 간의 보상은 어디서 받으며 배우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연극은 배우가 하는데 극단주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증거다. 스스로를 대우하기 위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후배들의 분노는 팽배했고 그도 더 이상 연극계의 고질과 후진성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간과하지 않았다. 뒤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기보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자세로 1983년, 현재의 배우협회의 모태가 된 '30대 연기자 그룹'을 결성했고 배우들의 출연료 계약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연극계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불같은 행동을 보고 연극계의 선배인 전무송은 배우가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쓰다보면 연기에 금이 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최종원을 붙들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를 가지라"고

연극배우 최 종 원

충고했다. 그러자 그는 ‘ 배우의 권익 ’‘ 배우의 처우개선 ’‘ 배우의 존엄성을 지키자 ’는 것이 왜 남의 일이며 연극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좋은 연기는 기대할 수 없다고 오히려 항의했다.

그는 연기 할 때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하나의 역할을 맡으면 배역에 깊숙히 파고들어 ‘ 피가 통하고 맥박이 뛰는 인물 ’로 관객을 일시에 사로잡는다. 조역을 할 때도 전신을 내던지듯 역동적으로 연기하여 주역을 제치고 곧잘 연극의 중심에 서버린다. 특히 바늘과 실로 지칭되는 전무송과의 연기 대결은 ‘ 연염(煙焰)의 조화 ’에 비유될만큼 완벽한 커플로 평판이 나있다.

이강백 작 김광림 연출의 <북어 대가리>에서 세상이 싫기 때문에 아무 데도 가고싶지 않은 소극적인 전무송과 아무 데도 갈 곳은 없지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적극적인 최종원의 반항적 연기가 없었다면 전무송의 차분한 내면 연기는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갇혀진 창고 속의 삶으로부터 끊임없이 탈출하려는 거칠고 투박한 그의 모습에는 고향인 탄광촌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실려있어 보는 이의 가슴에 전율 같은 아픔을 던져주었다. 그가 정의를 부르짖고 무대에서 다양한 연기를 펼치는 이면에는 바로 그의 성장과정이 토양이 되고 있다.

### 탄광촌, 그 어둠 속 몸부림의 나날들

최종원은 1949년, 강원도 삼척군 장성에서 함태 탄광업소 소장이던 부친 최석담(崔錫聃)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고향은 따사로운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산천이 아니라 척박한 빈곤이 얼룩진 메마른 오지였다. 바람에 날리는 석탄가루로 인해 낙동강은 시커멓게 물든 먹물 줄기였고 산도 나무도 심지어는 빨래줄에 넌 빨래와 먹는 음식까지도 모든 것이 온통 검기만 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을의 배경음과도 같은 여인들의 한 맺힌 통곡소리가 들렸다. 탄차에 깔린 사람, 실족사, 갱내부들이 갱도가 무너져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동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초상을 치뤄야 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자들은 걸핏하면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치거나 남자들은 대낮부터 술상에 둘러앉아 탄가루에 찌든 목을 술로 달래었다. 죽음은 일상적이었고 슬픔은 사치였다.

최종원의 집안은 부친이 직장을 그만두자 가세는 더욱 기울어졌다. 태백공고 졸업 후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이 의례히

1995년 대종상 남우조연상 수상작,
영화 <영원한 제국>




<만리장성>

그렇듯이 그는 탄분석기사가 되어 캄캄한 막장에 내려가 석탄을 캐는 현장실습에 들어갔다. 3개월의 실습을 끝내고 나오던 날, 동료 중의 한 사람이 수직 600m 지하로 떨어져 죽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는 동료를 살리기 위해 갱(坑)으로 들어가겠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아득한 땅 밑으로 추락하면서 비좁은 갱벽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났을 시신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었다. 묵화(墨畵)처럼 검은 탄광촌은 농무(濃霧)가 첩첩이 쌓인듯 막막할뿐 미래는커녕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끝이었다.

그 무렵 한양공대를 졸업하고 석탄공사에 취직해서 고향의 광업소에 내려와 있던 둘째 형(종탁)이 현장에서 질식사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형은 그에게는 " 내가 너의 대학을 책임진다 "고 감싸주던 유일한 희망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과 고향에 대한 환멸, 술집 외상, 싸움질, 비통과 분노, 가난과 무기력이 집합된 듯한 극지의 땅을 떠나지 않는 한 타고난 비극적 삶을 모면할 길은 없었다. 그는 지체할 필요없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 온 그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서라벌예대에 다니고 있던 누나(종월)의 자취방에서 한동안 빈둥거리는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 연극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고 물었다.

## 연극을 위한 연극

" 연극을 해봐라. 배우가 되는 것이 네게 맞을 것 같다. "

' 배우 '라는 단어가 가슴을 쳤고 자신에게 잠재돼 있던 새로운 개성의 마그마가 분출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들떴다. 고교시절에 박종화 원작의 <금삼의 피>에 출연했던 그는 연극이 전혀 낯설지 않아 "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 통탄할 정도였다. 서울연극학교(현 서울예대)에서 면접시험을 치루던 날, 동랑(東朗) 유치진이 " 왜 연극을 하려는가? "고 물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 연극을 위해서 "라고 대답했다. ' 연극을 위해서 '라는 정답을 지침 삼아 남다른 경험을 요구하는 연극무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의 눈 앞에는 유치진 이원경 오사량 등 기라성 같은 스승들이 있었고 그들을 놓치면 인생의 끈을 놓치게 된다는 각오로 그는 마음의 광산에서 연극적 기량이라는 금맥을 캐나갔다.

연극배우 최 종 원

첫무대는 1970년, 전국대학생극회가 주최한 존 파울즈 원작의 연극 <콜렉터>였다. 여기서 집요한 수집벽과 애정망상증에 걸린 싸이코 연기로 장래 연기의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살로메> <햄릿>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토선생전> <만리장성> <격정만리> 등 동서양과 고금을 넘나드는 일련의 작품들에 출현하며 ' 기본기가 탄탄한 연기자 '' 능란하고 현란한 연기구사 '로 연극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 110여편의 연극에서 독특한 성격 연기가 어필되어 『동아연극상 』 대상(1983년) 『연출가 그룹 연기상 · 영희연극상』(1985년) 『서울연극제』 남자주연상(1989년) 『사랑의 연극제』 최우수주연상(1991년) 등 굵직한 연극상을 휩쓸었다.

연극을 보지 않는 관객들에게 최종원은 영화배우나 TV 탤런트로 알려져 있다. 서민의 애환을 펼치는 진지한 무대배우가 아니라 영화나 텔레비전의 조역으로 남을 웃기는 코믹 배우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영화 <마누라 죽이기>의 못말리는 킬러 역이나 <총잡이>에서의 은행강도, <헤어 드레서>에서 의상실 주인 등, 그가 보여준 스크린 연기는 거의가 희극적 역할이었으며 그가 등장하면 관객들은 웃을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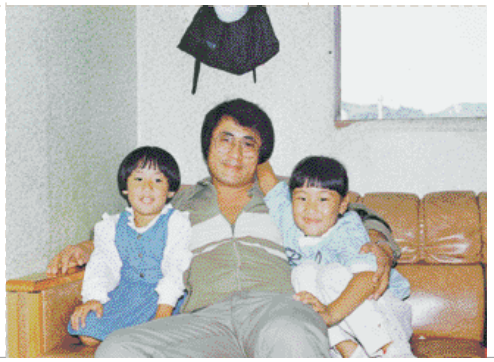
" 영국의 극작가 노엘 카워드는 ' 희극의 진수는 웃기는 데 있지 않고 그 웃음을 조종하는 데 있다 '고 했다. 희극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는 자신을 콘트롤하는 데 달렸다. 배우의 연기가 창조성과 정확성을 띠게 되면 경계신호인 관객의 기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된다. "

## 진정한 페이소스는 웃음 속의 눈물

참으로 차원 높은 코미디언은 관객을 울릴 수도 있다. 웃음 속의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페이소스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의 희극철학은 "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현대에서 인간에게 웃음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이 없는 육체일뿐, 메마른 인간성의 회복은 우선 잃었던 웃음을 되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는 이론에 투철하다. 이른바 그의 희극연기는 정극에 의한 전초과정이 없었다면 기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철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연기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명세 감독의 <남자는 괴로워>에서 회사에 있으나마

최종원의 두 자녀 나래(왼쪽)와 나미




1997년 <북어대가리> 공연 시절

나한 무기력한 존재인 샐러리맨으로 등장하여 속물적인 비애감을 뿌리는가 하면, 이인화의 소설을 영화화한 박종원 감독의 <영원한 제국>에서는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나선 정조와 피할 수 없는 결전을 벌이는 교활한 심환지의 교언영색(巧言令色)을 분장하여 1995년, 대종상 남우 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는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집념이 대단하다. 초기에는 고향인 강원도 사투리가 대사에 섞여 나온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발음연습에만 매달린 뒤 그만의 독특한 대사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지금도 최종원 대사법은 희비극과 영화의 진행에서 하나의 구두점이 되고 있다.

그는 희극에서는 미국의 풍습희극(風習喜劇)의 대가인 윌리엄 워렌을 교과서로 삼고 비극에서는 눈물과 불꽃의 마술사로 불리는 조셉 탈마와 셰익스피어극의 일인자인 데이빗 개릭을 흠모한다. 최종원은 세월이 지나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중진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의 들끓는 내면의 갈등을 보고 주변에서는 연극배우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도 노조 위원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가 소속된 장르는 어디까지나 연극이며 그의 본업은 무대배우다. 그 자신도 영화나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은“ 연극을 제대로 하기 위한 생계수단에 불과하다 ”고 밝힌다.

“ 연극배우가 영화에 출연하면 영화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인색한 출연료를 받는데 비해 영화배우가 연극에 출연하면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영화인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영화계에 나와 2, 3일간 일하면 그 보수로 2, 3개월 이상 연극에 매달릴 수 있게 된다. 2, 3개월 이상 연습기간을 거쳐 배우가 직접 무대에 서는 연극은 가난하고 한번 찍은 필름은 비싼 값으로 팔려나가는 현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

무대에서는 불꽃 튀기는 연기, 배우들의 권익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투사지만, 연극만을 우기다보니 생활에서는 당연히 무능한 가장이었다. 아무리 온몸을 던져 무대를 지켜도 가난의 골은 깊어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전세를 줄이고 또 줄이면서 명륜동 2가 산꼭대기에서 14차례나 이사로 전전하자 철없는 딸들은“ 왜 우리집은 맨날 이사만 가느냐? ”고 울먹였다.

연극배우 최 종 원

최상의 선택이었기에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연극이냐, 생활이냐의 기로에서 그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마다 "연극무대가 무슨 연기 연습장인줄 아느냐"고 몰아부쳤던 그가, 이번에는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영화 · TV 출연으로 생활이 다소 안정되자 가족들은 그가 무대에 서는 것보다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그는 가족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연극배우였고 앞으로도 연극을 한다. 가난은 어쩔 수 없다. 나의 연극을 방해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가족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1985년 이후 10년 간 영화 · TV출연을 일체 끊고 중앙대 신문방송 대학원과 고려대학 산업정책대학원에 다녔다. 그리고 메마른 연극성을 축적하기 위해 『서울연극제』에서 남자주연상으로 탄 상금을 들고 뉴욕으로 건너갔다. <팬텀 오브 오페라>에서 <캐츠>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동안 브로드웨이의 연극 뮤지컬 실험극 전위극들을 관람하면서 경탄할만한 무대장치, 완벽한 연기에 ' 우물안 개구리 '라는 부끄러움을 새삼 느꼈고 연극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미국에서 돌아오자 가장 친밀한 선배인 전무송과 함께 1993년 ' 우리 정서에 맞는 제대로된 창작극을 우리가 개발한다 '는 취지로 ' 극발전연구회 '를 발족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뉴욕에서의 받은 생생한 충격의 산물이었다.

긴 세월이 지나 그의 가난과 울분은 전보다 많이 순화되었다. 결혼생활 23년만인 3년 전,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됐으나 평생 부모를 모시지 못한 데 대한 한(恨) 때문에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누나에게 집을 넘겨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부인 정영애와 두 딸과 함께 돈암동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부친은 92세, 어머니는 93세. 올해 결혼 75주년인데 너무 나이가 드셨으니 비행기는 커녕 자동차도 조심스러워서 태워드리지 못한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너무 늦었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그의 두딸인 나래(25) 나미(24) 자매는 그가 과거 한때 탄부의 아들로 태어나 탄부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따라 연극배우와 뮤지컬 배우의 길을 걷고 있다.

### 슬픔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면연기를

올 봄 연극협회 이사장에 선임된 그는 지난 5월, 5만여 한국 교포가

살고있는 미국 댈러스의『한국의 날』기념행사와 6월에는 제주에서 열린『제19회 전국연극제』참석 이후 요즘은 오는 10월에 열리는『서울공연예술제』준비에 들어가 있다.

그의 신조는 내가 선 위치에서 어른답게, 형답게, 연기자답게 살자 이다. 또한 그는 단체를 이끄는 협회장으로서는 ' 연극계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서 연극인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투명한 화합을 이루는 일 '을 실천하고 싶어한다. 이른바 " 세계연극에 비추어 우리 연극계가 당면한 과제와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건강한 연극풍토를 조성한 뒤 후배들이 마음껏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는 것이다.

연기자로서는 지난 가을, 이만희 작 강영걸 연출의 <아름다운 거리>를 세실극장에서 공연한 이후 30세 때 연기했던 <리어왕>으로 ' 슬픔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면연기에 도전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끝도 없는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져본 사람이라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감할 수 있다. 실직 때문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었거나 돈에 얽힌 무서운 배신감을 맛본 사람은 슬픔이나 기쁨이 극도에 다다르면 무아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지금쯤은 슬픔에 몰입하는 절정의 연기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그는 몇 년 전 대학로 인간소극장에 올려졌던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에서 자신의 이러한 심경을 대변하는 절박한 웅변을 토해내 얼어붙은 객석의 침묵을 다시 한번 깨트렸다.

" 한강아! 산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냥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가슴 속에 저마다 별빛 같은 희망을 품어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일뿐. "

배우의 마음이 관객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연극이나 소설보다 더 강파른 시련을 겪어야만 악마적이면서 동시에 천사의 웃음을 지니는 천(千)의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광촌과 연극계에서 숱한 삶과 죽음, 뼈져린 가난과 슬픔의 고비를 맛본 그가 보여준 것은 외면적이거나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진실의 결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긴 연습 끝에 무대에 서는 예술. 수많은 삶을 다양하게 비쳐보는 동안 그는 연극의 광산에서 마침내 가장 빛나는 ' 연기의 완성 '이라는 금을 캐는 광부가 될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이 세 기

- 이화여대 및 대학원 졸업
- 『조선일보』신춘문예 소설당선,『현대문학』소설추천,
- 『서울신문』에 ' 이세기의 인물탐구 '(92 - 99년)연재
- 『대한매일』논설위원, 본지 편집자문위원, 한국간행물위원회 심의위원
- 창작집「바람과 놀며」「그 다음은 침묵」김옥길 평전「자유와 날개」외
- 현대문학상 · 서울언론인클럽 신문컬럼상